

일본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응

日本總理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에 있던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들이 시원한 평안보로도 못한 채 오히려 주먹과 발길질세례만 받고 돌아왔다. 생존 被害者對策委員會와 안부 할머니 14명이 지난달 하순 충리를 면담하기 위해 내시간 틈새 기다린 끝에 40여명의 공판이로 돌아갔다. 40여명의 충리부 관리를과 들쳐온 이 밤오지면서 폭행을 당했다. 그중 한 할머니는 전치4주의 뇌골 골절상을 입기까지 했다.恨과鬱憤밖엔 남지 않아 이 할머니들은 게프고시과자의 안방에 되살려준 「暴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이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한 것인가?」

「대접하는 것은 植民統治로 무리진줄을 모았었던 일본의 관리로서 응징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진작 일본정부가 이 문제해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 은 안 일어났을 것 아닌가.」 金泳三政府가 일본의 배상을 서부함과 아울러 취한 생활보조 조치로 강제징용위안부문제가지 금 부민의 관점에서 멀어진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韓·日정신대관련위원회체 등의 조정기노력이 로 국제연맹은 확산일로에 있다. 보스니아事態를 계기로 「전쟁중 침해된 여성의 인권문제」로서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유엔人權委員會는 정신대대책협의 회(정대협)가 일본 檢察官부타 고를정원수를 거부한안과 영리

「중국의와안부 동원책임자 처벌」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결의했고 앞으로 계속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간다 영국 네덜란드 워싱턴 베를린 방북 자카르타 등지에서 열린 세계적 人權團體 女性團體들의 집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졌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나와 세계적인 관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고 있다. 95년 北京 세계여성대회에서도 크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 정대협은 유엔을 무대로 일본의 安保理 常任理事國 진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 한다. 2차대전의 戰後清算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의 세계평화를 좌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武漢에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 국인이 할머니 9명이 살아있는지 확인되었다. 그들을인지할 일련한 단행의 후유증이이로 정신부담을 등 질병과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하는 폭행을 되풀이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면 세계적 양심의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본이 명심해야 한다.